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광림서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8월 20일, 광림서교회에서 인천·청라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다짐

2023년 8월 20일, 광림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 청라에 위치한 광림서교회 대 예배실에서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 16대 감독)은 '10개의 지성전 건축, 10개의 해외 선교센터 건립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고자 일산, 목포, 무안 등의 3곳,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광림남교회, 동교회, 서교회, 북교회 등을 봉헌했고, 지난 7월 동탄광림교회, 총 8곳의 교회를 봉헌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미션센터를 봉헌하여 잠비아 인접 8개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번 광림서교회의 독립은 지역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김정석 담임목사와 광림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현실로 드러난 열매라 할 수 있다.

2017년 8월 2일, 지하 1층, 지상 3층의 488

평, 300석의 예배실 규모로 봉헌된 광림서교회는 인천 및 청라신도시를 넘어 중국까지의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건축되었다. 광림교회의 5대 전통에 기초하여 말씀, 기도, 예배, 선교에 집중한 광림서교회는 매주 3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 3년의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데 앞장 섰던 광림서교회는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지역 교회가 되었다. 불과 5년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현재 한국 교회는 무리한 건축, 임대료 상승 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 놓여 있다"면서 "재정 위기의 교회는 선교나 영혼 구원에 미흡할 수 밖에 없지만, 광림교회의 선교 원칙은 교회가 충분히 자립할 때까지 동역한 뒤 독립하는 것이다. 안정된 교회는 지역 교회를 넘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광역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면서 이전 독립한 교회들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광림서교회 역시 코로나 기간 중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및 세계 선교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된 원동력 또한 광림교회의 선교적 전략 때문이었다.

중부연회 감독 김찬호 목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당부했고, 중부연회 35대 감독이었던 정연수 목사는 "광림서교회의 '서'라는 글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쪽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끝에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해들은 수혜자라면서 광림서교회도 서쪽으로 복음을 전해 중국, 러시아, 중동, 이슬람까지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길 원한다"라고 축사했다.

광림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정준수 목사는 "광림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훈련이 내 인생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

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 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 광림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광림서교회는 이제 중부연회 새인천지방 소속으로 청라 지역과 인천, 중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광역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며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널리 전하는 광림의 선교적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한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 마음을 지켜 말씀으로 살아가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마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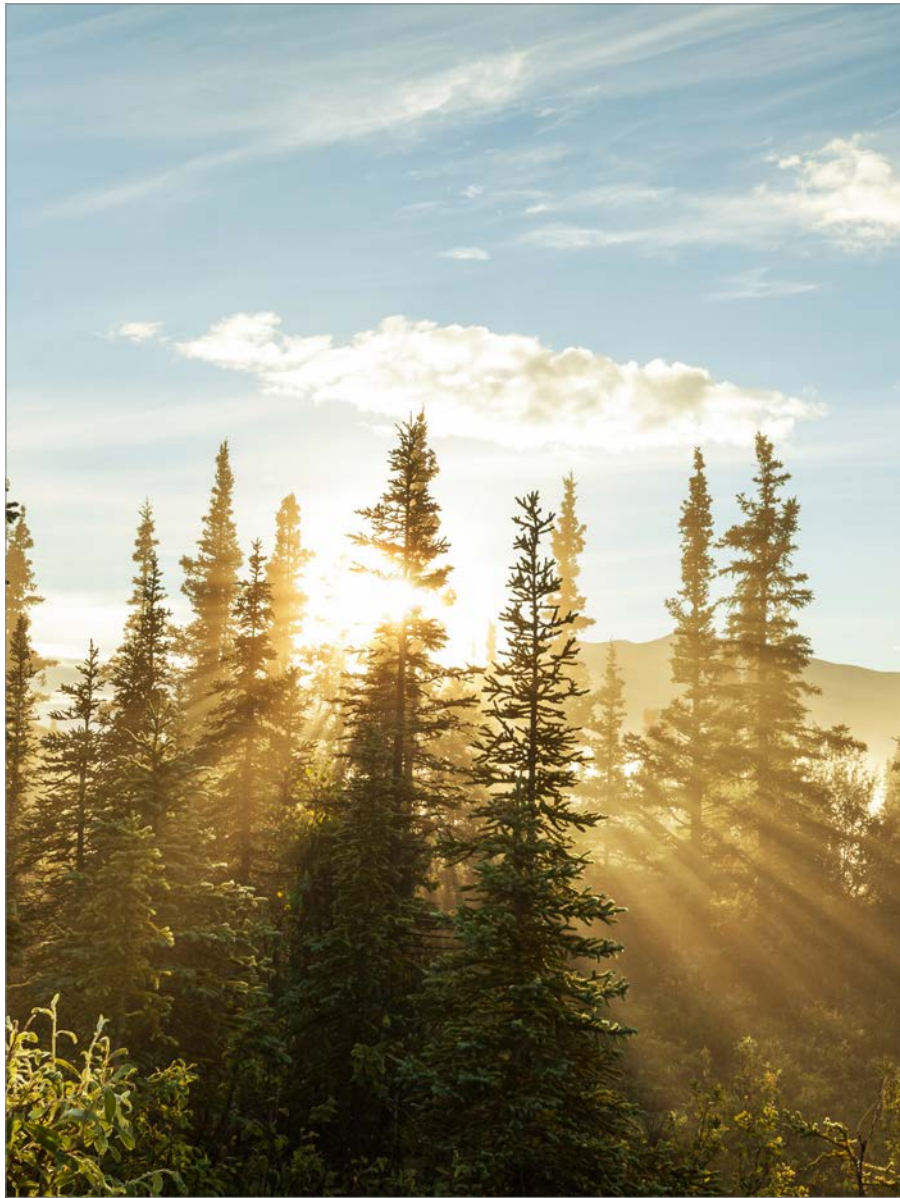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달래며 삶 속에서 신중을 기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무엇이든지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러져서 아주 기회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를 따라 순리대로 나갈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쉽 없이 가르치고 강론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한 그들은 비록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전 세계를 유랑했지만 그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얻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역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데에 그 뿌리를 둥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먹는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10절)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에 매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 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의무를 집행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규칙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출 30:17-21).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의도로 일상 생활의 위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적용하고자 세부 규칙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율법의 참된 목적과 정신이 사라진 형식주의로 전락했고 심지어 그들은 부모 봉양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고르반’(막 7:11) 제도를 만들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출 20:12; 21:17)을 어기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전통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앙 전통과 규례를 지키겠다고, 정작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는 이들의 모습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시대적인 변화에 명분을 두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중심을 넘어서서 말씀 최우선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



### 마 15:1-20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나님이 이르셨도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거니와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가야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도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2.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둘째, 매일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도 맹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며,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인하는 것

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자기 부정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따라 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말씀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영적으로 맹인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 셋째,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더러운 것은 밖에서 먹을 것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입술이 더러워지고, 입술이 더러워지면 내 손과 발걸음, 즉 삶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뽑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손을 자르거나 다른 아내를 바라본 눈을 뽑는다고 탐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이나 눈이 ‘마음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탐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마음이 요동치고 신앙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 생각을 닮기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19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시 51:10).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디옥 개신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나눔으로 이웃 사랑 실천해

### 절망, 안도, 감사, 나눔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이후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의 지원으로 안디옥 개신교회는 지역 주민을 돕고 위로하는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정부의 재건 계획에 따라 안디옥 개신교회가 있는 안타키아 지역의 전반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디옥 개신교회와 같은 문화재 건물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역사적 고증과 함께 복원 및 재건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의 경우 올해 100년이 된 매우 역사적인 건물로 시리아 지역이 프랑스의 관리하에 있을 때, 도청 건물과 함께 지어진 프랑스 영사관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동안 수많은 지진과 재난을 이겨낸 가장 안전한 건물이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튀르키예와 시리아 성도들은 건물이 무너진 동안에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주일에는 무너진 건물 앞에서 천막을 치고 야외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중에는 한 성도의 친척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주던 이웃에게 오히려 그리

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지진의 피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전해진 많은 성금과 위로 물품들을 전했으며, 앞으로 많은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회복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건물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먼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주변 건물의 잔해들을 치운 후 안전하지 않은 건물들은 철거하고 건축이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교회는 내외부의 건물 설계를 튀르키예 문화재청에 등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안전하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에 쓰였던 돌을 다시 사용하여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철거 작업과 재건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건과는 별개로 안디옥 개신교회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의 지원을 튀르키예 정부와 연결하여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가구에 구호품과 생필품,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TV 등을 전달했으며, 컨테이너 마을 조성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광림교회의 신속재난지원을 통해 구호차량을 구입하고, 구호물품을 산간 지역, 시리아 난민촌 등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미 성도 및 성도와 관계된 이웃에게 1차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 시설 확대, 직업 창출, 저리 대출 등의 사업을 통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재정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따라, 월드비전, 기아대책과 같은 국제 NGO단체와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의 현지인 성도들이 통역과 봉사 등 한국 NGO단체의 귀한 자원이 되어 구호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안디옥 개신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며, 안타키아 지역 정비와 함께 안디옥개신교회의 재건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현지 선교사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포토 뉴스



**월드비전 감사패 수여**  
월드비전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나눔으로 헌신한 김성석 담임목사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P국 K스쿨 방문**  
8월 20일~24일까지 김성석 담임목사는 P국 K스쿨을 방문해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8월 13일, 미국 UMC 소속 Scott Pickering 목사가 챔버리 대원으로 3부 예배에 참석했다.

### 담임목사 동정



- 8/13~15 전교인 여름수련회
- 8/17 국민일보 대담
- 8/19 월드비전 감사패 수여
- 8/20 광림서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 8/20~24 P국 K스쿨 방문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http://www.klmc.church)

# 발달장애 화가 26인의 '새로운 내일' 전시회

9월 6일(수) ~ 12일(화)까지 경인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다

오는 9월 6일(수)부터 12일(화)까지,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경인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사단법인 광림이 주최하는 발달장애 화가의 미술 전시회 '새로운 내일' 전(展)이 열린다. 발달장애 화가 26인의 작품 약 52점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2018년 이후 여섯 번째 외부 활동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외롭고 힘들었던 팬데믹 기간을 거치고 곳곳하게 창작 활동을 해 온 작가들의 노력과 열정이 작품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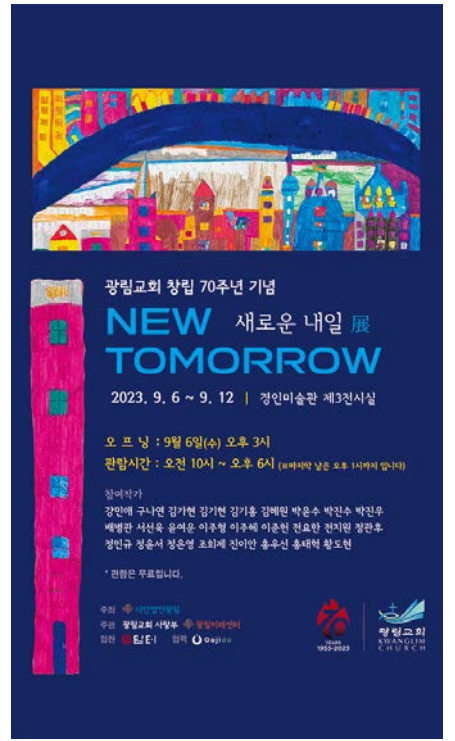
김기홍

## 광림교회 70주년 & 광림이레센터 20주년 기념 전시회

2003년 12월 '빛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웨슬리 교육관 예수와 홀에서 첫 전시회를 개최한 광림이레센터는 올해로 스무 살이 되었고, 그동안 30회가 넘는 크고 작은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광림이레센터 20주년과 맞물려 광림교회 70주년을 맞는 올해,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준비한 이번 전시는 내용과 규모 면에서도 어느 해보다 알차다. 신규 작가 4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발달장애 화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처음으로 대형 사이즈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하는 작품 수도 52점으로 그간의 전시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작품을 만나고 소장할 방법도 더욱 다양해졌다. 발달장애 화가들이 그린 원작은 전시회를 통해서만 실물을 감상할 수 있고, 전시 작품 중 일부는 디지털 판화(프린트)와 디지털 아트(NFT)로 판매한다. 디지털 판화와 디지

털 아트 작품은 개인이 소장할 수 있으며 작가들에게는 수익 창출의 새로운 시도가 된다. 또한 전시 이후에도 발달장애 화가들의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화되고 있는 미술 시장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NFT 전문기업 '가지다(www.gajida.io)'와 협력해 발달장애 화가들의 작품을 디지털 아트로 발행하는데, 구입한 작품은 핸드폰 및 PC에 이미지로 소장할 수 있다. 우형진 장로(사랑부 위원장)는 "발달장애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즐거움이 솟아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는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새로운 내일,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분이 오시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혜선 기자



##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⑨ 꽃꽂이 선교회

### 꽃꽂이 선교회를 언제 어떤 계기로 섬기게 되었나요?

2005년쯤 중보기도자로 봉사할 때, 10년의 비전과 소원을 품고 매주 10송이 장미꽃으로 중보기도실을 환하고 단아하게 올려드리는 김영희 권사님을 보면서 나도 거룩한 성전에 향기로운 꽃과 함께 헌신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현재 꽃꽂이 선교회 회장인 이순호 권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회원들과 함께 배우며 새신자실 꽃꽂이 봉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 꽃꽂이 봉사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이 있다면?

남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만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영영 울 때, 남편은 술과 담배 끊으면 교회에 간다고 하길래 교회부터 출석하면 성령님이 끊게 해주신다고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장님이 벨엘성전에 꽃꽂이를 누군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남편에게 무심코 얘기했더니 남편은 밤새 잠을 설치며 "내가 꽃 헌금하겠다"고 해서 지금의 벨엘성전의 꽃꽂이를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서 7년째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게 믿음의 분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정에 배 드리고 출근하며 주야로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호흡산 기간과 여름에는 벨엘성전에 꽃꽂이 대신에 난 화분을 놓고 있어요.

### 봉사하며 보람 있고 감사했던 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레위지파와 같다는 말씀에 제단에 올라가 작업할 때는 주님의 임재가 강한 거룩한 성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제단임에 더욱 정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성전문을 들어서면 꽃꽂이를 먼저 보면서 은혜로 마음문이 먼저 열린다고 할 때 보람이 있습니다. 꽃꽂이 선교회가 거룩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변영혜 기자



## 의료선교회 세미나 ⑥ 일반외과

# 모든 용종은 암이 되나요?

대장 용종(폴립)은 50세 이상 성인(무증상) 대상의 대장내시경 선별 검사에서 30~40% 정도 발견된다. 3명당 1명꼴로 발생률이 높다.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대장 점막 세포의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장암 가족력과 남성, 고령층 등에서 잘 발생한다. 후자는 붉은색 육류나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섬유소와 비타민 D, 칼슘 섭취 부족 등의 식습관과 비만 음주 같은 생활 습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모든 대장 용종이 다 대장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과 그렇지 않은 비종양

성으로 나뉜다. 종양성 용종은 선종, 유암종, 악성 등이 있다. 비종양성 용종은 대장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종으로 과형성, 용종양 점막, 과오종, 염증성, 지방종 등이 있다. 대장암의 70~80% 정도가 선종성 용종을 거쳐 5~10년 후 암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용종의 성질은 향후 받아야 하는 대장내시경의 주기와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종성 용종을 절제했다고 해서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cm 이하 선종을 1~2개 제거했다면 주치의와 상담을 거쳐 2년 후 대장 내시경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

만 선종을 3개 이상 제거한 경우나, 선종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대장암 가족력, 기타 고위험성 용종인 경우는 1년 이내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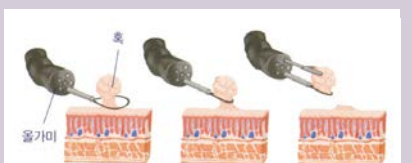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지방식을 줄이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곡류, 해조류, 버섯류, 야채류 등)을 섭취하면 용종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50세 이상이면서 갑작스럽게 배변 습관이 변하고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육류를 좋아하고 흡연을 한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진섭 장로(의료선교회)

###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이란?

개복수술을 하지않고 간편하게 내시경을 이용하여 개복수술 한 것과 같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용종은 내시경을 통해 철사로 된 올가미를 이용하여 용종을 잘라내며, 전기 소작을 하기도 합니다.



# 청년선교국, 몽골 땅에 다음 세대를 세우다

## <2023 청년선교국 해외단기선교> 8월 9일 ~16일까지 진행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의 <2023년 해외 단기선교>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몽골에서 진행되었다. 수개월 동안 해외단기선교를 위해 기도과 말씀으로 훈련받은 광림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을 품고 선교에 참여하여 복음의 사명을 이루고 돌아왔다.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인식을 가진 몽골인들이지만, 개신교인은 1% 밖에 되지 않는다. 그 1%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침체와 낙망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영적 회복과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가 간절히 필요하였다.

지난 8월 9일(수) 정영욱 전도사를 포함한 19명의 팀원들이 몽골 땅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들은 이번 선교를 위하여 몇 달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였고 7박 8일의 일정 동안 광림교회 파송선교사인 이재욱, 어등가와 목사와 동행하며, 어잉게렐 미션센터와 어르비트 미션센터에서 가정 방문 전도, 전도 축제, 어린이 사역 등의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고 십자가 복음을 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였다.

어잉게렐과 어르비트에는 많은 몽골 청년들이 교회에 나왔으나, 코로나 기간 동안 생계와 취업 문제로 많은 이들이 몽골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회에는 젊은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베퉀 위에서도 꽃이 피듯이 몽골 땅에는 광림의 청년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10년 전에 갔던 해외 선교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된 몽골의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광림교회 청년들은 몽골 청년들을 만나 애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기도로 준비했던 집회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다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은혜를 통해 알게 하셨다.

박지혜 청년은 "몽골과 한국의 청년들이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다시 신앙의 길

을 걸어가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유종현 청년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현실에서의 여러 문제가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릴까 걱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주를 위한 모든 일,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고 계시니 계속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였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라며 은혜를 나누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의 몽골 선교는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네팔과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9월 28일(목)부터 10월 4일(수)까지 진행될 일본과 네팔의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먼저 믿음으로 결단할 때의 평안의 은혜입니다. 선교에 참여하고 싶지만 휴가나 연차가 없는 직업이라 참여가 불투명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를 간다고 이것저것 직분을 맡았다가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걱정으로 선교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미리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저의 작은 시선에서 상황만 바라보며 불안해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며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였더니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하시며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믿음 없이 불안해하는 제게 주님의 크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수민 지구장(1교구)

### 청장년부

**청장년세대의 부모로서 지혜로운 자녀 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신범식 장로(청장년 2부 위원장)는 지난 8월 13일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나는 어떤 부모일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의 목적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지칠 수 있는 청장년 세대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다.

강사로 나온 안성원 집사는 놀이아동상담과 목회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림어린이 집에서부터 신앙으로 양육 받고 청장년부에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했다. 안성원 집사는 청장년세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에 공감하며 지혜로운 자녀 양육의 가이드라인을 제

## “나는 어떤 부모일까?”

시했다.

이번 특강은 부모양육태도검사(PAT) 검사지를 통해 부모자신의 양육태도를 진단,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양육 방법을 알아보았다. 특강에 이어서 필요한 가정에 상담을 실시했다. PAT검사는 부모양육태도를 8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특강을 마치며 안성원 집사는 "좋은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자녀의 욕구를 존중하고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부모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전했다.

특강에 참여한 이수영 청장년2부 회장은 "아이 양육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 하지

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청장년부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평소 고민했던 부모로서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지지 표현'에는 이상적인 점수를 받았지만, '비일관성'이 너무 높은 등 보완할 부분이 한 눈에 보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서는 신기하게도 엄마와 아빠의 점수가 항목별로 반대로 나온 가정이 많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라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지혜 청장년2부 부장은 "이번 강의는 나의 양육태도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자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주의 자녀임을 잊고, 내 뜻대로 자녀를 이끌곤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겠다는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유심원 전도사(청장년부)



목회현장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김우진 목사(광림북교회)

지난 주 북교회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모두 가신 후 불이 다 꺼진 예배실을 정리하러 올라갔다...

예수님이 너무 생각나서 교회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때 많이 방향한 뒤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일하던 가구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게 되어 마음이 괴로워서 밤새 술에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광림북교회 십자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저기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님을 참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물었습니다.

그분을 보내고 난 뒤, '연락처나 인적사항이라도 받아둘 걸'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광림북교회에서 8개월 정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고,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배워갑니다.

광림북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광림남교회

다양한 곳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다

가나안 성가대, 동탄광림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



광림남교회 가나안 성가대는 동탄광림교회 3부 예배에서 성가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가대 대장 이정욱 권사님은 동탄광림교회 3부 예배를 가나안 성가대에서 섬기기로 하였을 때 추가적인 연습과 식사와 성가대원들의 헌신 등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이 있는 상태에서 동탄광림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자가 기쁨으로 헌신하겠다고 하였고, 광림남교회와 동탄광림교회 목사님 두 분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 은혜가 된다는 권사님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오시는 새신자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54교구 연합속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며, 10월 8일(주일)에는 남선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 버스킹 전도팀도 동탄광림교회 근처에서 전도하고 버스킹을 진행하며 섬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림남교회 청년부에서는 8월 19일(토) 교육 선교와 지역 선교를 진행하며 남사빛의교회회를 섬겼습니다. 교육 선교팀은 유초등부 아이들 12명을 대상으로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지역선교팀은 용인시 남사지역의 도서관 근처 공원에서 찬양으로 버스킹을 진행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도하였고, 버스킹이 끝난 후에는 상가가 많이 있는 중심거리에서 전도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진행하며 남사빛의교회회를 섬겼습니다.

김현진 전도사(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몽골 어르비트미션센터 위한 '선교후원카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선교로!

지난 8월 6일(주일) 봉헌 5주년을 맞이한 광림북교회에서는 지난 5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광림북교회와 자매결연을 한 몽골 어르비트 미션센터 돕기를 위한 '선교후원카페'를 진행한 것입니다.

석류로 만든 아나르 에이드(pomegranate) 등 몽골의 다양한 문화를 '선교후원카페'를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통 의상을 착용한 한 몽골 성도님께서 '마두금(馬頭琴)'이라는 악기도 연주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울란바토르의 서쪽에는 게르촌이 있어 젊은 세대와 어린이, 청소년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과 후 교육이 없는 몽골의 특성 상 다음세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돌봄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16

##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



**Robert Alexander Hardie**  
한국명 | 하리영(河鯉泳)  
1865. 6. 11 ~ 1949. 6. 30

올해는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3년 하디 회심 110주년을 기념하기 몇 년 전부터입니다. 그동안 하디는 한국 선교 역사에서 잊혀진 선교사였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목회자와 역사학자의 연구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이전에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 하디의 영적 각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65년, 하디는 캐나다 온타리오 세네카라는 동네에서 감리교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하디는 아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 ‘로버트와 일찍 죽은 동생의 이름 ‘알렉산더를 따서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디가 열 살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낳고 돌아가셨고, 4개월 후에는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하디와 동생들은 빨뽕이 흩어져 친척들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농부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부모를 잃고 형제와 떨어져 외로운 소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열 다섯 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학업을 마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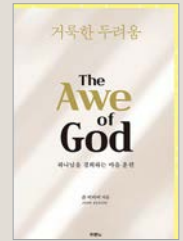
그때,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던 마가렛 마틸다 켈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는데, 이 외에도 둘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에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보다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독교인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디는 바로 토론토로 가서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곳에서 YMCA의 포어맨 목사가 ‘의사가 많은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에 즉시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당시 약혼녀였던 켈리에게도 편

지를 썼습니다. 켈리의 대답은 “기꺼이 함께 가겠다”였습니다. 하디에 앞서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게일이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게일은 처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한국의 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한양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병원이 없었기에 전염병이 걸리면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전염병, 천연두, 이질 같은 것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게일은 한국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토론토 의학생 기독교 청년회에 알렸고, 당시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리면서 하디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유리한 환경보다는 불리한 환경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1890년 하디 부부는 토론토 의학생 기독교 청년회로부터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원하는 적은 선교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부모님의 유언과 “선교지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더 의미있지 않겠냐”라는 포어맨 목사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함께 가겠다”는 아내의 응원, 더 나아가 “더 어려운 곳을 찾아가겠다”는 하디 자신의 결심이 만든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김정석 담임목사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거룩한 두려움]  
존 비비어 지음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 빠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 하면 거부감부터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존 비비어는 이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파괴하는 나쁜 두려움’과 구분한다. 그는 성경 말씀과 지난 40년간의 사역에서 얻은 사례들을 잘 버무려, 하나님이 순종과 진리로 마음 다해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떠나 내 속사람이 갈망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현상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지음

성령님에 대한 책은 다양하고, 그분에 대한 논쟁도 많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성령님을 아는가? 그분을 경험했는가? 그분과 동행하는가? 그분을 추구하는가?”

A. W. 토저는 평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분투한 사람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추구하는 삶의 놀라움을 맛보았던 그의 고백이 마음을 울린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까?”

이 책을 읽음으로써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영원 속에 계신 성령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 다양한 세대 간의 동행, 남선교회 하계수련회



<2023 광림 남선교회 하계수련회>가 8월 7일(월)~9일(수)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삼척 및 경북 울진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 주관으로 전교인 체육대회 등 상반기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한 임원들이 자연에서 휴식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다시 힘있게 하반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선교회 임원들 중심으로 27명이 참가하여 삼척 방주교회(담임 서승원 목사)에서 개회 예배와 울진 새마음교회(담임 진재용 목사)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등 총 네 번의 집회를 통해 교회와 남선교회, 그리고 삼척과

울진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틈틈이 지역을 탐방하며 지경을 넓히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수련회를 출발하기 전부터 태풍 카눈의 예보 속에 올해 수련회는 순탄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동해바다는 화창한 날씨를 뽐내며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남선교회의 수련회를 환히 맞아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죽변에서 해안스카이라인을 탈 때는 동해바다와 일렁이는 파도를 볼 수 있었고, 추암 촛대바위 주변을 걸을 때는 적당히 구름간 하늘과 선선한 바람으로 인도했다. 옹봉산의 원당을 향해 올라가는 산행길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축축함이 더해져 더욱 수월하게 느껴졌으며, 거센 풍랑으로 인해 통제가 된 바다를 뒤로하고, 방주교회 근처의 개울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대체했다. 한 권사님은 “교회 수련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놀던 그대로 놀아볼 수 있을까?”라며, “해수욕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박기연 장로는 둘째날 아침 기도회에서 “나의 친구 예수”(요 15:12-17)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주시는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됨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가 스테판, 디모데, 바울, 웨슬레 등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어 더 감사하다. 진정한 친구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선교하는 남선교회가 되자”라고 전했다.

이번 수련회를 돌아보면,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안 닿은 것이 없으며, 예비하고 준비하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내년도 하계수련회는 더 많은 남선교회의 일꾼들이 함께하며,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본다.

안병태 집사(남선교회 문화체육본부장)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36



## 빌라도 총독의 재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 27:11-14)

양심의 가책을 느낀 가롯 유다가 자살할 무렵, 예수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졌다. 빌라도 총독도 익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유대 온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는 등 기적을 일으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던 갈릴리 사람 예수…….' 빌라도 총독이 보기에 예수는 로마에 반역하는 일도 없었고,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의회가 그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후 자기 앞에 끌고 온 것에 곤혹스러웠다. 빌라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었다. "그를 왜 내게 데리고 왔소? 당신들의 율법으

로 재판하시오." 이에 대제사장 무리가 대답했다. "예수는 유대 백성을 미혹하여 선동하고, 로마 황제 폐하께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였으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우리에게 사형권이 없습니다." 물끄러미 예수를 바라보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에게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는 대답하였다. "네가 한 말이 옳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예수를 향하여 맹렬하게 고발을 퍼부으며 아우성쳤다. 하지만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빌라도 총독이 다시 예수에게 물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가? 네게 해명(解明)할 기회를 주겠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침묵을 지킬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비범한 사람인 것을 간파하였다. 그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며, 그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빌라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니, 우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재판권이 있소.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시오." 헤롯 안디바는 33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



▲ 빌라도 총독을 설득하는 유대 지도자\_ 유대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산헤드린 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해 달라고 빌라도 총독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다.

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다.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장본인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닌가'하며 두려워하였다. 그 예수가 재판을 받으러 궁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안디바는 예수를 만났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예수를 심문하기는커녕 예수에게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요구했다. 예수가 침묵으로 일관하자, 그는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이 너무 초라하다. 이 자를 왕처럼 입혀라. 그리고 죄인을 다시 총독에게 보내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은 예수에게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는 '왕이여, 왕이여' 부르며 조롱했다. 재판 결과를 알기 위해 헤롯 안디바의 궁에 따라온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쳐 냈다.

예수를 직접 처형하지 않으려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던 예수가 돌아오자 빌라도 총독은 다시 곤혹에 빠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의 아우성은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 갔다. 만약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유대 백성을 선동할 것이고, 자칫 폭동이라도 발생한다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부임한 총독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빌라도 총독은 다시 예수를 심문하였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예수는 같은 대답이었고, 빌라도 총독의 심문은 계속 이어졌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만약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지지자들이

싸웠을 것이며, 나는 여기까지 보내지지 않았을 것이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뜻이냐?" 이에 예수가 분명하게 말하였다. "나는 왕이오. 나는 이 세상에 진리에 대해 말하려고 왔소.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소." 계속 예수를 심문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급하게 전갈을 보내왔다. "이 고귀한 사람을 재판하는 것에 상관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그 사람 꿈으로 밤새 뒤숭숭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빌라도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악의(惡意)적인 음모에서 시작되고 진행된 것을 알고 있었다. 또 예수는 자기가 재판하고 판결할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결 큰 소리로 고함쳤다. "예수를 죽여라! 저자는 반역자이며 사형에 처할 자이다!" 빌라도 총독의 고민은 더욱 커졌고, 유대인들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광림뉴스레터



◀ 빌라도 총독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_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문하는 장면으로, 당시 죄인을 사형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